

2. 디지털 복합기 시장 동향

효율적 사무환경, 생산성 향상 국내도 내년부터 확산 기대

세계 사무기 시장의 큰 흐름은 네트워크화, 복합기능화, 컬러화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디지털 복합기가 '정보의 공유, 신속한 정보의 전달, 공간 절약,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이루어냈다.

일본은 1999년 말 전체 복사기 시장 중 80% 이상이 디지털 제품으로, 제한된 용도의 일부 수요를 제외하고는 거의 디지털 제품으로 대체돼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디지털 제품의 판매량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5% 미만으로 사무기부문의 디지털화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보급 미미한 수준

올해 국내 아날로그 복사기 시장은 작년 대비 25~30% 가량의 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해, 디지털 복합기 시장은 작년 대비 약 20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욱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빠르게 디지털 복합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복합기 보급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올 3/4분기까지 모두 8만 6천대의 복사기가 판매됐으며 디지털복합기는 6,400대로 7%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디지털복합기 시장규모는 상반기에만 약 2,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디지털 제품이 전체 복사기 시장의 80% 이상

디지털 복합기관?

복사기, 팩스, 프린터, 스캐너 등의 기능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제품

왜 필요한가?

디지털 복합기의 장점은 통합성, 확장성(공유성), 응용성.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 각종 비용(관리비, 경비) 절감, 공간 절약,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있다.

- ① 통합성-복사기, 팩스, 프린터, 스캐너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공간의 활용성과 비용 절감 효과
- ② 확장성-네트워크 지원이 가능해 장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각각의 업무환경에 맞게 대응
- ③ 응용성-복사, 팩스, 프린터, 스캔 기능을 이용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정보입력 → 편집 → 저장 → 출력)

인 일본은 물론이고 30% 정도인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하고 있어 국내 사무기의 디지털화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후지제록스(주)가 1996년 처음으로 에이블 시리즈(디지털 복사기/팩스)를 출시했다. 1997년 신도리코의 Sigma 시리즈 및 롯데캐논의 GP-215 Digital 복사기가 출시되면서 디지털 복사기 시장에서 경쟁이 시작됐다. 1998년 7월 신도리코는 Afcio 200 시리즈를 저

디지털복합기 신제품 동향

- (주)롯데캐논 : 올해중 분당 35매의 디지털 복합기 출시예정(국내생산)
- (주)신도리코 : 10월중 분당 22매, 27매의 디지털복합기 출시(국내생산)
- 한국 후지제록스(주) : 분당 10매(저가시장 공략) '디카프' 출시. 분당 40매기 중점 영업
- (주)데이콤(미놀타) : 11월중 분당 15매, 18매의 디지털복합기 출시예정
- 태흥아이에스(코니카) : 10월중 분당 20매, 30매/11월중 55매, 75매의 디지털복합기 출시예정
- 청호컴넷(미타) : 11월중 분당 30매의 아날로그복사기(조달용) 및 12월중 15매, 20매, 62매의 디지털복합기 출시예정

가로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에 참여했으며, 1997년 3월 한국 후지제록스(주)는 네트워크 프린트 기능(디지털 복사기/팩스/프린터)을 제공하는 최고급 디지털 복합기를 출시하며 High Volume Multi-Function 제품을 내놓았다.

이중 (주)롯데캐논은 세계 디지털복합기 시장의 흐름(60% 이상 디지털복사기로 전환)에 맞추어 시장규모가 적은 내수시장보다는 수요가 충분한 해외시장에 중점을 두고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주)신도리코도 1998년부터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올 11월부터 분당 속도 22매, 27매기를 수출한다.

OA 시장에서의 디지털기의 점유율은 1996년 0.4%, 1997년 1.4%를 차지한다. IMF환경인 1998년에도 디지털기는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1999년에는 3.0%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6.8% 정도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지털복합기 시장
추진전국시대 도래하나?**

국내 복사기 시장은 (주)롯데캐논, (주)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주)의 3사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체들이 일본 10대 메이커의 제품들을 들여오며 디지털복합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면서 수입이 자유로워졌고, 아직 국내 디지털복합기 비중이 미미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보일 디지털 복합기는 대략 분당 20매(가격 500만원대) 이상의 제품이다.

프린터 업계, 복사기 시장 본격 진출

먼저 대우통신의 사무기 사업을 인수한 데이콤(주)은 1990년대 초부터 대우통신과 제휴를 맺고 있던 미놀타의 디지털복합기를 들여온다.

태흥아이에스는 일본 코니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10월 말부터 디지털 복합기를 선보이며, 청호컴넷은 일본 미타와 계약을 맺고 11월 중에 제품을 들여올 계획이다. 두 회사는 모두 프린터 전문 제조업체로, 프린터와 팩스 기능을 함께 하는 디지털복합기가 대중화되면 프린터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리 디지털복합기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또 프린터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한편 1998년에 현대전자의 사업포기로 철수했던 샤프도 합작사인 샤프전자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며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흥아이에스-프린터 생산업체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프린터 제품(도트 및 레이저 프린터)을 공급해 왔다.

9월에 일본 코니카와 제휴계약을 맺고 제품발표회를 개최했으며, 10월 말부터 코니카의 디지털복합기로 분당 속도 20매(태흥dmm7020-

400~500만원), 30매(태흥7030-500~600만원)의 제품을 기존 60개의 유통망을 통해서 선보인다. 11월 말부터는 분당 속도 55매기, 75매기도 내놓을 계획이다. 1차 타깃은 임대업자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기업 전산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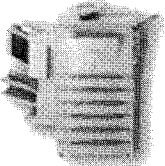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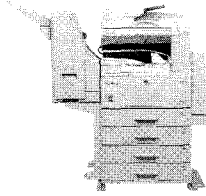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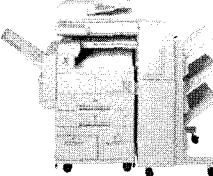
현재 완제품을 들여오며 20매, 30매 기기는 콘트롤러만 한글화 작업을 한다. 점차 조립생산 체제를 갖추고 국산화해갈 계획이다.

· 청호컴넷-2년 전부터 프린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

다. 7월에 미타와 제휴를 맺었으며 12월 경에 일단 분당 속도 15매, 20매(500만원 이상) 정도의 디지털 복합기를 내놓고, 내년 초에 62매 고속기와 디지털 특수기(도면용)를 선보인다. 공략 대상은 역시 정부나 관공서이며, 기존 지사 22개 외에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 중이다.

조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구로 공장에서 분당 복사 속도 30매의 아날로그 복사기 한 기종(모델명 chc3060)을 직접 조립 제작하며, 출시는 10월 이후로 보고 있다.

각사 디지털 복합기 소개

회사모델명	사진	주요사항
(주)롯데캐논 GP220		복사기+프린터+팩스+스캔(옵션) 복사/프린터속도 : 분당 22매 해상도 : 1200x600dpi 최대원고/복사크기: A3 25~800% 줌 기능, 디지털 편집 기능
신도리코 Aficio 220 11월 말 출시 예정		복사기+프린터+팩스+스캔(옵션) 복사/프린터속도 : 분당 22매 해상도 : 600dpi 최대원고/복사크기:A3 25~400% 줌 기능
한국후지제록스 Document Centre 250		복사기+프린터+팩스+스캔(옵션) 복사/프린터속도 : 분당 25매 해상도 : 600dpi 최대원고/복사크기:A3 25~400% 줌 기능
(주)데이통콤 Di151 11월 말 출시 예정		복사기+프린터+팩스+스캔(옵션) 복사/프린터속도 : 분당 15매 해상도 : 600dpi 최대원고/복사크기:A4 50~200% 줌 기능